

건축의 형태에 있어서 예각(銳角) 디자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Problems of an Acute Angle Design in Architectural Form and Improvement Plan

임명구* 이재국**

Lim, Myung-Gu Lee, Jae-Kook

Abstract

It is an obstacle to improve living environments that an acute angle architectural design is often seen. Though that design give a stress to the neighborhood, we can't prevent the design taking place. We must control architectural design, because it is important to public worth and urban aesthetic. To prevent selfish architectural design, it is recommend to extend design review and reflect neighborhood opinions.

키워드 : 예각, 형태, 공공성, 디자인 심의

Keywords : acute, form, public, design review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¹⁾

건축물은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 비교적 큰 규모로 도시의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수십년 또는 수백년간 지속적으로 공간을 점유(占有)하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정주(定住)를 위한 물리적 생활 공간의 제공과 함께 도시생활을 윤택(潤澤)하게 하는 문화·사회적 역할로 도시민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서울은 세계적인 거대도시로 성장되었으며, 보다 안락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많은 비용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으나 일부 건축물에서는 도시의 안락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한 공공적 가치보다 최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기적인 건축디자인, 상업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자극적이고 이질적인 건축디자인 그리고 불필요한 과잉 건축디자인으로 기능의 부적합뿐만 아니라 자원을 낭비하고 시각적 스트레스와 불안감 그리고 주변환경과의 부조화로 깨끗하고 안락한 도시환경 조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점차 도시의 건축물이 이기적인 욕심으로 이질적이고 자극적인 디자인으로 진행되어 가는 시점에서 과연 우리 주변의 건축물이 지역성(地域性)과 문화를 반영하고 공공의 복리와 도시의 미관을 증진시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1987년 국민의 기본권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의 제정으로 삶의 질과 도시미관 등에 관심이 증폭된 시점인 1987년 이후에 건축되어 진 서울지역 건축물 중 폐단(弊端)이 큰 예각 디자인²⁾ 요소를 갖는 사례를 들어 디자인의 문제점을 지적(指摘)하고 깨끗하고 안락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1.2 연구의 순서와 방법

상기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연구의 개략적(概略的)인 순서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의 도시적 특성을 살피고 도시민의 가치관에 대한 성향(性向)을 문현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둘째, 도시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올바른 건축디자인에 대하여 문현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공공의 안락함과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는 역경사 건축디자인사례를 찾아 설문조사와 의미미분법으로 건축디자인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넷째, 건축디자인 폐단사례가 나올 수 있었던 원인을 분석하고 선진 도시의 사례와 비교하였다.

다섯째, 깨끗하고 안락한 도시의 아름다움을 조성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 정회원, 정도디지털건축 대표, 공학박사
** 정회원, 서일대학 건축과 조교수, 공학박사

2) 본 연구논문에서 예각 디자인란 평면 또는 입면에서 주요 구조체가 이루는 각이 60도 이하인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도시의 성격 고찰

2.1 도시의 특징

건축물은 도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건축물을 기반(基盤)으로 도시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건축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건축을 만든다.’라고 했던 처칠의 말처럼 건축물은 도시민의 생활양식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도시 건축물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도시민의 가치관과 서울의 도시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2.1.1 도시민의 가치관

오늘날의 도시는 중세도시와 달리 산업혁명으로 도시 발달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현대 도시는 기계문명에 힘입은 공업제품의 대량생산과 그 제품의 대량거래·대량수송으로부터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공업의 발달은 고용 기회를 증대시키고, 고용증대는 많은 사람들의 도시로 이입(移入)을 가져오게 하여 고도의 집약된 생활 환경을 갖게되었다. 이에 따라 생활양식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기계화되어 있고 인공적 환경의 비중이 높아 인구·사회 구성 등에서 이질적 요소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주민생활에서는 사회적 문화와 지역적 이동이 많고, 사회적 관계는 그 범위가 넓으며, 결합관계가 비인격적·일시적·형식적인 특징이 있으며, 점차 고유의 전통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며, 과도한 경쟁과 자기이익추구로 사무적이고 개인적이며, 비인간적이며, 상호 이질적이며, 일회적인 인간관계를 갖게된다.

‘개인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익명성으로 인하여 공동의 가치관이 해이해지고, 사람들의 성품은 순수성을 잃고 범죄·비행·퇴폐적 생활·정신적 붕괴현상을 일으키게 된다.’고 사회학자³⁾가 그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

2.2 서울의 도시화 과정

서울의 도시화 과정은 급격한 사회변동에 인한 단기간의 급속한 도시화로 건축물과 도시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가 과밀화(過密化)되어 정비되지 않은 혼란된 도시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1 인구의 폭발적 증가

서울의 인구 집중과정을 살펴보면 1945년 해방직후 해외동포의 귀국과 북한 주민의 남하(南下)로 대규모의 인구이동에 의한 급격한 변화라는 점에서 역사상 매우 특이하다. 이때 일제강점기에 해외로 유출되었던 약 300만 명의 교포가 귀환했고, 북한지역에서 이주한 인구가 약 150만명에 달했으며, 6·25전쟁 과정에서도 약 150만명의 피난민이 남쪽으로 이동해 각 지역에 정착했다. 이를 중

상당한 사람들이 도시가 제공하는 고용기회와 익명성(匿名性) 등의 이유로 남한의 몇몇 대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정착함으로써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였다.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거듭하면서 산업의 중심이 농업에서 공업과 서비스업으로 넘어가면서 이농(移農)·이촌(移村) 인구의 대부분이 대도시로 향했고, 서울은 이처럼 농촌으로부터 유입되는 인구들로 끊임없이 비대해져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점개발이 사회경제개발의 기본전략으로 채택되어 대도시 중심의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특히 서울의 성장은 폭발적 이었으며,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와 그에 기초한 개발집중, 그리고 각종 기반시설로 인한 산업입지의 우위가 인구와 기능의 집중을 가속화시켰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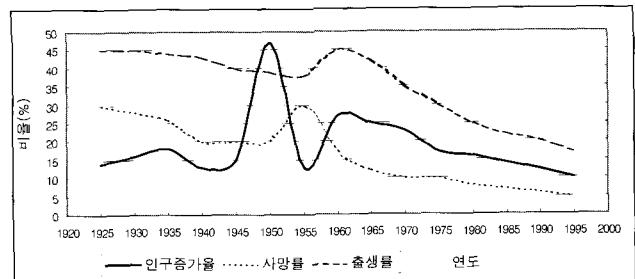


그림 1. 남한의 인구 증가율 추이

표 1. 세계 주요도시의 인구밀도⁵⁾ (단위:명/km²)

| 구도 | 서울 | 싱가폴 | 뉴욕 | 런던 | 뮌헨 | 동경 |
|------|--------|-------|-------|-------|-------|--------|
| 인구밀도 | 17,277 | 4,274 | 9,174 | 4,274 | 4,184 | 13,158 |

2.2.2 건축물의 폭발적 증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산업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건축물의 증가는 대부분 질적(質的) 가치보다는 공급우선의 양적(量的) 팽창이 중요시된 시기에 지어진 건축물로 건축물의 사회 문화적 가치는 크게 고려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폭발적인 건축수요에 비하여 건축물 설계를 담당할 인력이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부족하여 1990년 현재 일본은 국민 2천명당 1명 꼴로 건축사가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에는 숫자상으로는 1만5천명 당 1명, 실제 활동하는 건축사 수로 치면 거의 3만명당 1명 밖에 안되는 과중한 업무로 건축물의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기 힘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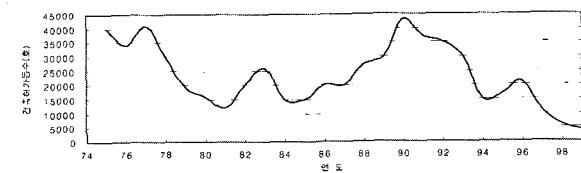


그림 2. 서울시 건축허가 추이(동수기준)

4) 브리태니카 한글판 백과사전, 2000

5)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1998

3) L.위스는 지역공동체의 규모가 크고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구성원이 이질적일수록 도시적인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3. 건축의 공공성과 건축디자인

3.1 건축의 공공성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도시지역은 높은 지가(地價)를 형성하고 있다. 그 위에 건축된 건축물은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며, 중요한 재산적 가치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많은 자본이 투자된 건축물에서 높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며, 최대 건축면적 확보와 상업적 인지도(認知度)를 높이기 위한 건축행위를 하고 있다. 사유지에 세워지는 건축물이 사익을 전제로 함은 당연하지만 동시에 공익(公益)에 대한 기본적 배려 즉, 최소한의 공공성을 갖추어야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은 도시의 근간을 이루고 안락하고쾌적한 환경을 위한 기본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공공의 복리와 삶의 질을 향상을 목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을 비롯해서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을 보더라도 공공의 복리증진을 공동의 목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대한민국 현행 법률

| | |
|--------|---|
| 헌법 | <p>제23조②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p> <p>제35조 ①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폐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
| 건축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도시 계획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의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그러나 헌법,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 등을 통하여 건축물이 최소한의 공공성을 지니도록 규제하거나 유도하고 있으나 폐적하고 안락한 도시를 위한 기본 전제에도 불구하고 주변환경과 도시를 배려하고, 공공의 복리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공공성을 있는 건축물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오히려 주위를 압도하고, 잘난 척 치장한 건물들 그리고 자기만의 이익과 사람보다는 자동차의 편의만을 우선시 하는 건축물을 더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⁷⁾

3.1.1 건축의 공공적 요소

건축의 공공적 요소를 살펴보면 크게 물리적인 요소와 비(非)물리적인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리적인 요소는 여러 건축요소가 사람 또는 주변환경에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기능, 안전, 환경적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비 물리적인 요소는 사람의 감정적 차원인 미적, 사회·문화적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서울시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는 건축법에서 직접적으로 공공에게 영향을 주는 법규정을 살펴보면 표3과

6) 서울특별시 통계연감, 2000

7) 정석외 2인, 건축의 공동성 증진을 위한 건축 기준 및 유도 방안,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1997에서 인용

같이 주로 물리적 공공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비물리적 요소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건축디자인에 대한 규정은 주로 면적, 높이, 길이 등 건축물에 담긴 디자인의 내용보다는 물리적·양적 평가기준을 삼고 있어서 다양하게 변형되어 표현되어질 수 있는 건축디자인의 심미성(深味性)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표3. 공공에게 영향을 주는 관련 법규정

| 법명 | 물리적 요소 | | | 비물리적 요소 |
|-------------------------|--------|----|----|---------|
| | 기능 | 안전 | 환경 | |
|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 | | 0 | |
| 건축물의 건폐율 | | | 0 | |
| 건축물의 용적률 | | | 0 | |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0 | 0 | 0 | |
| 건축물의 높이제한 | | | 0 | |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 | 0 | |
| 건축설비 등의 기준 | 0 | 0 | | |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 | 0 | |
| 전면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 | | 0 | |
| 인접대지사선제한(일반사선제한) | | | 0 | |
| 인접대지간격높이제한 | | | 0 | |
| 대지내 인동 높이 제한 | | | 0 | |
| 건물로의 진입 | 0 | 0 | | |
| 건축선의 지정 | | | 0 | |
| 대지내 보행로 | 0 | | | |
| 대중교통과 연계 | 0 | | | |
| 보행자연결통로 | 0 | | | |
| 확장보도 | 0 | | | |
|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 | 0 | |
| 대지의 최소너비 | | | 0 | |
| 대지의 안의 공지 | | | 0 | |
| 건축물의 높이 | | | 0 | |
| 건축물의 앞면 길이 | | | 0 | |
| 건축물의 옆면 길이 | | | 0 | |
| 건축물의 색재 | | | 0 | |
| 대지내 공지 확보 | | | 0 | |
| 지구(가로내)높이제한 | | | 0 | 0 |
| 특별지구 설정높이 제한 | | | 0 | 0 |

3.2 건축디자인의 공공성

서울의 급속한 도시화 과정 중에 있었던 건축생산활동은 절대 부족한 주거공간과 경제성장에 필요한 건축물을 공급하기 위해 절적 공급보다는 양적 공급이 우선시 되었으며, 건축의 효율성을 위하여 주로 건축주의 입장에서 건축물이 생산, 관리되어,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이기적인 도시성향을 가진 건축주들은 건축물의 아름다움과 도시의 폐적함보다는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한 건축활동이 이루어져왔다.

또한 건축물의 형태는 공공을 위한 안락하고 폐적한 환경 제공을 우선하기보다는 건축주의 경제적 이익 확대와 상업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도시미관의 부조화와 시각적 공해로 인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등의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

3.2.1 건축디자인의 중요성

사람의 오감(*H.感*)을 통해 얻게되는 정보의 대부분은 87%가 시각(視覺)에 의존하고 있다⁸⁾. 소리(예: 도심지의 소음, 새소리, 물소리), 냄새(예: 꽃향기, 음식냄새) 등이 환경의 미적(美的) 질(質)을 좌우하는 특별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시각적 전달이 환경의 미적 질을 좌우하는 주요인자가 된다.

특히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디자인이 직접적으로 인간의 생명이나 안전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일반 제품디자인과 달리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볼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도에 상관없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그리고 넓은 공간적 범위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건축디자인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술작품 혹은 환경적 자극(刺戟)의 아름다움, 흥미로움 등을 자극으로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미적 반응(反應)을 체력감(快樂感)으로 표현했을 때 이러한 자극과 반응의 관계는 그림3과 같이 '역(逆) U 자(字)'의 관계성을 갖는다.

자극이 낮을 경우에는 유쾌(愉快), 불유쾌(不愉快) 어느 것도 아니며, 중간 정도의 자극은 최고의 체력감을 가지며, 자극이 지나칠 때에는 오히려 불쾌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지나친 통일성(단순성이나 감각적 부족상태)은 자극 부족을 초래하고, 복잡하고 기형적인 부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은 자극 수준을 증가시키며, 과다한 자극에 대한 반응은 호흡이나 박동 혈압 등의 증가와 함께 근육의 긴장이나 수행능력감소, 욕구불만 등 오히려 피로감과 불쾌함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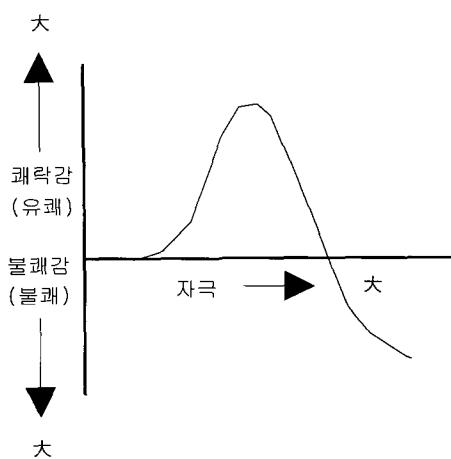


그림3. 자극에 대한 체감의 변화¹⁰⁾

8) Correy, visual perception and scenic assessment in australia, IFLA year book pp181-189, 1983

9) 임승빈, 환경심리·행태론, 보성문화사, 1986에서 인용

10) 상계서에서 인용

3.2.2 건축디자인의 공공적 요건

모든 건축물의 디자인이 모든 이에게 이롭고 건축주나 건축가 요구하는 작품성과 개성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이겠지만, 상업적 이익이나 일시적인 인기만을 위한 외형의 차별화 경쟁이 가열되어 불필요한 혹을 붙이거나 자극적인 괴기형(怪奇形)도 사양치 않는 등의 개성만을 무리하게 내세워 오히려 출속하게 보이고 부담스런 건축물보다는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고 공공에게 안락함과 페적함을 주는 점잖은 건축디자인이 오랜 기간 우리 곁에 있는 건축물로서 최소한의 공공적 요건이라 할 수 있다.¹¹⁾¹²⁾

4. 건축디자인 평가 분석

4.1 건축디자인 평가 방법

비물리적인 요소인 건축디자인은 개인의 주관적 기호와 취향에 따라 그 가치가 변할 뿐만 아니라 '좋고', '나쁨'의 용량을 계량화하기 힘든 요소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공공성이라는 입장에서 다수인(多數人)에게 위해(危害)나 불쾌감을 주는 건축디자인이라면 올바른 건축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건축디자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시각적 선호도와 같이 느낌이나 감정을 평가하는 설문조사의 문제점은 3장의 자극과 페적함을 나타내는 관계에서와 같이 일시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일시적으로 호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건축물이 오랜 기간 사람에게 영향을 주듯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심상(心象)을 찾아 낼 수 있는 의미미분법(意味微分法)을 활용하여 건축디자인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찾도록 하였다.

4.1.1 의미 미분법(SD)의 개요

인간의 심상을 계량화(計量化)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겠으나 지금까지 고안된 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의미미분법(SD, semantic differance)이다.

의미미분법은 인간의 감성을 표현하는 형용사를 가지고 인간의 심상공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Osgood 등이 세계 각국 어휘의 의미가 어느 정도 유사한지 조사하는 비교문화연구의 목적으로 개발하여, 1957년 Measurement of Meaning 책에서 그 방법과 사고방식에서 처음 적용하였다.

11) 이민섭, 도학연구, 기문당, 1999에서 인용

12) "예쁜 여자(娘)는 처음에는 사람을 미혹시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가게 마련이다. 거기에 성격까지 나쁘다면 그런 여자(娘)를 고른 사람의 고생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수더분하고 모나지 않으며 있어도 표가 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그것이 바로 자생풍수가 명당으로 꼽는 어머니 같은 땅이다." (최창조, 북녘산하 북녘풍수, 중앙일보, 1998.2.21)

임명구, 이재구

4.1.2 대표 형용사 선정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형용사 중 건축디자인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형용사를 건축잡지, 국어사전, 선행연구자료, 건축의장례포트 등에서 형용사를 추출한 후 건축물에 대한 느낌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호 대비적인 형용사로 짹을 이루도록 대표 형용사 58개를 선정하였다. 상호 대비적인 성격을 갖는 형용사 별로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4. 대표 양극 형용사

| | | |
|---|--|--|
| 부드러운 - 거친 수수한 - 화려한 친근한 - 이질적인 가벼운 - 무거운 깨끗한 - 더러운 정돈된 - 난잡한 안정된 - 긴장된 여지러운 - 편안한 진한 - 옅은 투명한 - 불투명한 | 뛰어나온 - 가지런한 기울어진 - 반듯한 동적인 - 정적인 정형적인 - 이형적인 대칭적인 - 비대칭적인 비대한 - 아담한 날카로운 - 무딘 돌보이는 - 평범한 단순한 - 복잡한 | 점잖은 - 경박한 자극적인 - 순한 경제적인 - 낭비적인 실용적인 - 장식적인 일상적인 - 환상적인 인공적인 - 자연적인 전통적인 - 현대적인 도시적인 - 전원적인 한국적인 - 이국적인 서양적인 - 동양적인 |
|---|--|--|

4.1.3 대표 형용사의 의미 분석

건축디자인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는 대표 형용사가 내포하고 있는 미적 호감도와 쾌적함에 대한 의미량(意味量)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의 예문과 같이 서울시 거주 자중 15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하였다.

예문) 다음의 형용사가 주는 미적 호감도(그리고 쾌적함)에 대한 느낌의 정도를 아래의 평가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형용사 : 기울어진

| | | | | | | | | | |
|---|---|---|---|---|----|----|----|----|----|
| 5 | 4 | 3 | 2 | 1 | -1 | -2 | -3 | -4 | -5 |
|---|---|---|---|---|----|----|----|----|----|

미적 호감도가 높다 보통이다 미적 호감도가 낮다

| | | | | | | | | | |
|---|---|---|---|---|----|----|----|----|----|
| 5 | 4 | 3 | 2 | 1 | -1 | -2 | -3 | -4 | -5 |
|---|---|---|---|---|----|----|----|----|----|

매우 쾌적하다 보통이다 매우 불쾌하다

개개의 양극 대표형용사의 미적 호감과 쾌적함에 대한 평가값을 평균하여 최대값을 100으로 최소값은 -100으로 등비환산하여 미적 호감과 쾌적함을 두 축으로 하는 좌표공간에 표시하면 그림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보기 기호는 건축디자인 평가에 대한 기호임)

의미공간상에서 양극 형용사가 갖는 의미의 변이(기울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양극형용사는 미적 호감이 증가함에 따라 쾌적함이 증가하고 있으며, <돌보이는-평범한>, <환상적인-일상적인>, <가벼운-무거운> 형용사들은 미적 호감과 쾌적함은 역비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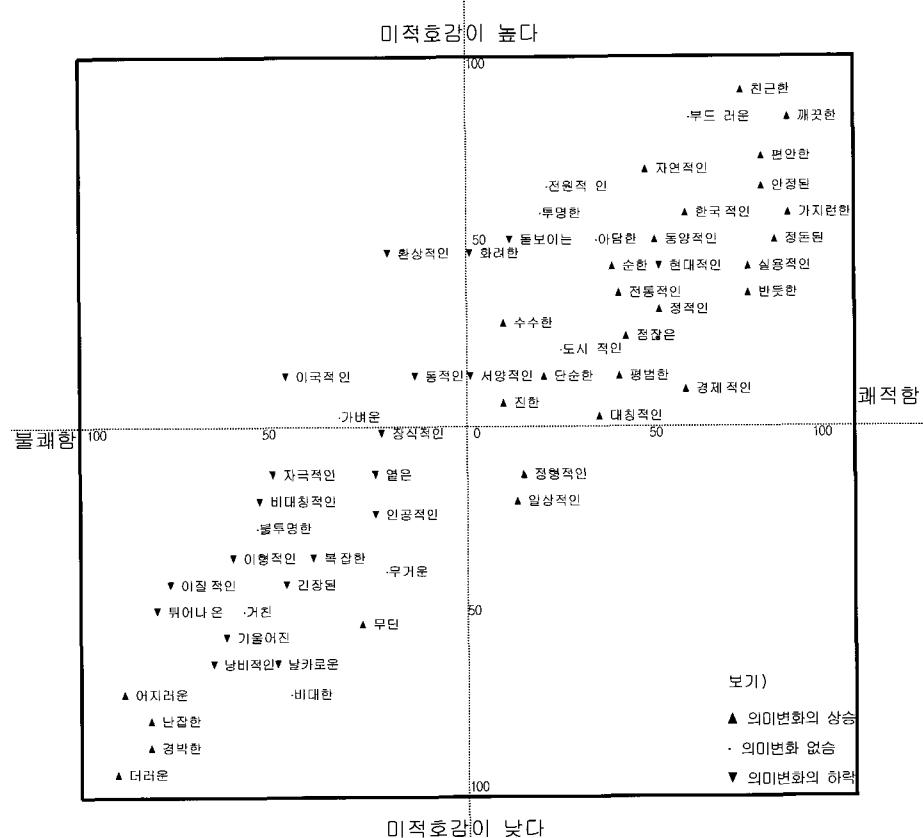


그림4. 대표 양극 형용사의 의미공간

4.2 사례별 건축디자인 평가

선(先)수집(收集)된¹³⁾ 건축물 중 건축물의 형태에 있어서 예각을 갖는 디자인 요소가 있는 대표적 건축물을 대상으로 의미분법으로 평가하였으며, 예각디자인 요소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개선한 사례를 가지고 비교 평가함으로서 디자인 폐단의 원인과 미적 호감과 폐적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문제점을 단순화시킨 모형을 통하여 디자인의 문제점을 검증하였다.

4.2.1 자극적 형태의 건축물의 문제점

그림5, 그림6, 그림7은 예각 디자인 요소가 있는 자극적인 형태의 대표적인 건축사례로 지속적으로 건축물로부터 영향을 받는 1일 6시간 이상 거주자 또는 근로자 각각 50명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표5, 표6, 표7과 같이 나타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설문1

“저 건축물이 이 지역의 도시미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 각각 65%, 52%, 47%해당하는 주민들이 이 지역 미관 향상에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설문2.

“저 건축물과 비슷한 건축물이 또 생긴다면 찬성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서 각각 72%, 49%, 59%가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

• 설문3,

“저 건축물 때문에 시작적 피곤함이나 스트레스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서 각각 80%, 48%, 44%가 예각 디자인의 건축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의 설문조사의 결과와 같이 예각 디자인 요소를 이용하여 자극적 형태를 갖는 건축물의 경우 무리한 개성만을 강조하였으나 인근 주민에게 불쾌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폐단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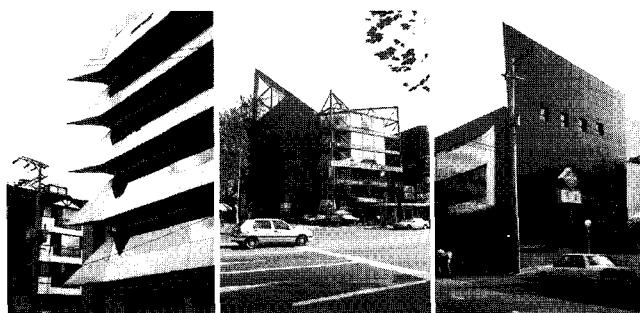


그림5. 사례1

그림6. 사례2

그림7. 사례3

13) 지난 10년간 학부과정 ‘건축의장’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선정한 ‘잘된 건축물’, ‘잘못된 건축물’

표5. 설문1에 대한 응답결과

| 구분 | 많이도움이된다 | 조금도움이된다 | 별 영향없다 | 조금 해친다 | 많이 해친다 |
|-----|---------|---------|--------|--------|--------|
| 사례1 | 5% | 12% | 18% | 43% | 22% |
| 사례2 | 18% | 21% | 30% | 35% | 17% |
| 사례3 | 5% | 13% | 35% | 32% | 15% |

표6. 설문2에 대한 응답결과

| 구분 | 적극찬성하겠다 | 조금찬성하겠다 | 그저 그렇다 | 조금반대하겠다 | 적극반대하겠다 |
|-----|---------|---------|--------|---------|---------|
| 사례1 | 1% | 5% | 22% | 35% | 37% |
| 사례2 | 11% | 16% | 24% | 34% | 15% |
| 사례3 | 2% | 10% | 29% | 42% | 17% |

표7. 설문3에 대한 응답결과

| 구분 | 자주있다 | 가끔있다 | 모르겠다 | 전혀없다 | 오히려기분좋다 |
|-----|------|------|------|------|---------|
| 사례1 | 53% | 27% | 12% | 7% | 1% |
| 사례2 | 13% | 35% | 21% | 14% | 17% |
| 사례3 | 25% | 19% | 33% | 13% | 10% |

4.2.2 건축디자인 사례 평가 방법

대표형용사가 갖는 미적 호감과 폐적함의 정도를 표현한 의미공간에 평가대상 건축물이 갖는 형용사적 의미를 의미공간 속에 투영(投影)시킴으로서 건축물이 갖는 미적 호감과 폐적함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대상 건축물이 갖는 형용사적 의미는 아래의 예문과 같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컴퓨터그래픽으로 문제점을 개선한 사례를 동시에 설문조사 하였다.

설문대상자는 대상 건축물 인근에서 15세 이상 65세 이하 남녀 구분 없이 각각 50명을 설문조사 하였다.

예문)

이 건축물(도형)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주어진 형용사에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평가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 | | | | | | | | |
|---------------|---|---|---|---|----|----|----|----|----|
| 5 | 4 | 3 | 2 | 1 | -1 | -2 | -3 | -4 | -5 |
| 기울어진 보통이다 빛듯한 | | | | | | | | | |

4.2.2 비교평가

실사례 중 그림8과 같이 예리한 돌출벽면을 그림9와 같이 반듯하게 변경하였을 때 느껴지는 미적 호감과 폐적함의 변화를 의미분석법으로 비교평가하고, 그림10과 그림11과 같이 단순화된 모형으로 의미변화의 유사성을 비교해본 결과 표8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부가적으로 실제사례와 모형사례의 의미변화 동조(同調) 여부를 판별함으로서 모형 선정이 적절했는가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의미변화에 따라 상승, 변화 없음, 하락으로 구분하여 그림4의 의미공간 속에 표시하여 그 의미의 증감을 비교하였다.



그림8 개선 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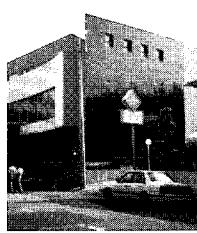


그림9. 개선 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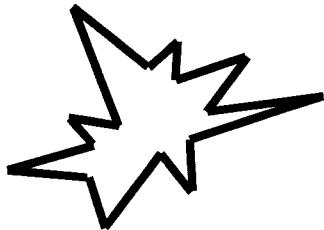


그림10. 자극적 형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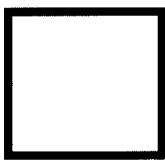


그림11. 자극적 형태 개선 모형

표8. 형용사의 의미변화(100점 만점으로 환산 함)

| 대표양극형용사 | 형용사B | 실제사례 | | 모형 | | 동조여부 |
|---------|-------|------|------|-----|-----|------|
| | | 실제사례 | 개선사례 | 모형 | 모형 | |
| 형용사A | 형용사B | 평가값 | 평가값 | 평가값 | 평가값 | |
| 기뻐운 | 무기운 | 82 | -61 | 44 | -41 | 0 |
| 경재적인 | 낭비적인 | -83 | 47 | -87 | 82 | 0 |
| 기울어진 | 반듯한 | 84 | -83 | 63 | -88 | 0 |
| 깨끗한 | 더러운 | -67 | 67 | -62 | 61 | 0 |
| 날카로운 | 무딘 | 83 | -27 | 61 | -87 | 0 |
| 단순한 | 복잡한 | -85 | 46 | -99 | 97 | 0 |
| 대칭적인 | 비대칭적인 | -98 | 62 | -84 | 95 | 0 |
| 도시적인 | 천원적 | 48 | -61 | 43 | -22 | 0 |
| 돋보이는 | 평범한 | 87 | -68 | 98 | -86 | 0 |
| 동적인 | 정적인 | 88 | -69 | 92 | -82 | 0 |
| 부드러운 | 거친 | -81 | 24 | -96 | -21 | 0 |
| 비대한 | 아담한 | 40 | -63 | 45 | -49 | 0 |
| 서양적인 | 동양인 | 63 | -25 | 47 | -68 | 0 |
| 수수한 | 화려한 | -85 | 67 | -83 | 63 | 0 |
| 실용적인 | 장식적인 | -11 | 87 | -82 | 85 | 0 |
| 인정된 | 긴장된 | -97 | 95 | -91 | 100 | 0 |
| 여지리운 | 편안한 | 82 | -42 | 87 | -46 | 0 |
| 인공적인 | 자연적인 | 87 | -89 | 69 | -47 | 0 |
| 일상적인 | 현상적인 | -86 | 67 | -85 | 66 | 0 |
| 자극적인 | 순한 | 85 | -46 | 86 | -87 | 0 |
| 전통적인 | 현대적 | -64 | 44 | -41 | 63 | 0 |
| 점잖은 | 경박한 | -81 | 80 | -83 | 82 | 0 |
| 정돈된 | 난잡한 | -87 | 84 | -68 | 86 | 0 |
| 정형적인 | 이형적인 | -82 | 46 | -87 | 82 | 0 |
| 진한 | 옅은 | -69 | 47 | -46 | 61 | 0 |
| 천근한 | 이질적인 | -80 | 66 | -85 | 42 | 0 |
| 투명한 | 불투명한 | 45 | -61 | -43 | 28 | x |
| 뭐어나운 | 가지런한 | 83 | -63 | 81 | -65 | 0 |
| 한국적인 | 미국적 | -67 | 26 | -80 | 47 | 0 |

표9. 의미공간에 있어서 의미 변화율

| 구분 | 상면 평가값이 상승된 형용사 | 하면 평가값이 상승된 형용사 | 우측면 평가값이 상승된 형용사 | 좌측면 평가값이 상승된 형용사 |
|------------|-----------------|-----------------|------------------|------------------|
| 그림8- 그림9 | 65%↑ | 21%↑ | 75%↑ | 12%↑ |
| 그림10- 그림11 | 62%↑ | 12%↑ | 72%↑ | 4%↑ |
| 의미 | 미적호감의 증가량 | 미적호감의 감소량 | 쾌적감의 증가량 | 쾌적감의 감소량 |

4.2.3 종합비교

그림8과 같이 자극적 형태를 그림9와 같이 평범하게 변경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미적 호감도가 44% 증가하였으며, 쾌적함도 63% 증가되었다. 그리고 위 사례의 특징을 간단히 묘사한 모형으로 미적 호감도와 공공성의 변화를 의미미분법으로 살펴본 결과 미적 호감은 50% 상승되었으며, 쾌적함은 68% 상승되었다. 또한 실제사례와 모형사례의 형용사 의미변화 동조율이 97%로서 미적 호감과 공공성의 의미 변화에 있어서 건축물의 예각 디자인 요소가 주요한 요소로 작용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미적 호감보다는 쾌적함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되었다.

따라서 건축물의 형태가 자극적이지 않도록 함으로서 미적 호감과 쾌적함이 동시에 향상됨을 알 수 있다.

5. 건축디자인 폐단사례의 발생 원인과 개선 방향

도시민의 이기적이고 경쟁적 성향은 건축물을 상호 이질적이며, 자극적인 과잉 디자인의 발생을 부추기고 있으며, 점차 도시는 안락함과 쾌적함보다는 긴장되고 자극적인 시각적 스트레스로 채워진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그 변화의 원인으로 공공의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노력에 무관심한 이기적인 건축주와 자극적이고 이질적인 디자인에 무감각(無感覺)해진 시민들, 건축디자인에 대하여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건축가 그리고 공익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관련 법제도의 넉넉함이 공공에게 불쾌감을 주는 건축디자인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 생각되어진다. 건축디자인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기능적 요인, 구조적 요인, 시대의 문화와 시대상을 담는 사회·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인 그리고 법규적 요인 등이 건축물의 형태와 색상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법규적 요인은 공공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공공에게 해(害)가 되는 건축디자인 폐단사례의 발생을 미연(未然)에 막지 못했던 법규적 원인을 4장에서 조사한 건축디자인 폐단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선진 도시의 건축디자인 관리 사례를 참고로 건축디자인의 폐단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5.1 건축디자인 폐단사례가 가능하게 했던 원인

4장에서 분석한 건축디자인 폐단사례는 모두 합법적(合法的)으로 건축되어진 건축물이지만 다수인에게 시각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관련 법규정에서는 이러한 건축디자인 폐단의 발생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건축의 형태에 있어서 예각디자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5.1.1 자극적 건축디자인 폐단 사례가 가능했던 원인

건축법에 있어서 건축물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요소로는 대지규모 최소한도, 대지내 공지확보,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이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형태제한 방법으로서 높이제한은 인접대지사선제한(일반사선제한, 일조권 사선제한), 인접대지간격높이제한, 대지내 인동 높이제한 등이 있으며, 전면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미관, 고도, 경관지구에서 가구내 높이제한, 특정지구 설정 높이제한, 고도지구에서 건축물의 최저·최고 높이의 제한 그리고 미관지구에서 추가적으로 건축물의 앞면 길이, 옆면길이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00년 들어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제도를 통합한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시행으로 해당지역에서는 표11과 같이 건축형태 및 디자인을 관리하고 있다.

건축 심의 대상 건축물에 한하여 표12와 같이 건축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건축 형태에 있어서 건축디자인 폐단사례가 가능했던 법규적 원인은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1) 건축물의 형태를 규정하는 건축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건축물과 도시의 미관보다는 건축물의 개발밀도를 관리하기 위한 총량규제차원에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건축물이 최대 건축되어 질 수 있는 건축 가능한 외곽선 만을 규정함으로서 그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형태가 이질적이고 자극적이거나, 예각 벽면처럼 다양하게 변형되어 적용될 수 있는 건축디자인이 공공에게 위험(危害)을 주더라도 그 형태를 제한할 수 없었다.

(2)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운영되고 있는 미관지구, 고도지구, 경관지구에서 적용되고 있는 형태제한도 마찬가지로 최소 또는 최대 외각선 만을 규정함으로서 건축 형태에 있어서 폐단 사례를 막지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적용 대상 지역도 극히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생활공간의 미관은 고려되지 못 했었다.

(3) 적극적인 도시관리수단인 도시설계지구와 상세계획지구의 운영(2000년부터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을 통해서 도시미관을 관리하고 있지만 이 역시 구체적 디자인 행위 내용에 대한 제한보다는 물리적 축정단위로 건축디자인을 제한을 하고 있으며, 그 적용 범위 또한 극히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일상 생활공간의 대부분의 도시 미관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4) 건축 행위이전에 건축디자인에 대한 심의가 대형 건축물과 일부 지역지구에만 한정되어 있었으며, 생활 대부분의 공간에서 건축되어지는 건축물들은 인근 주민이나 공공으로부터 건축디자인에 대한 위해 여부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되어서 건축주의 이기적인 건축디자인 행위를 미연에 막지 못하였다.

표10. 적극적으로 건축물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 건축관련 법규정

| 건축관련 법규정 | 적용대상(지역) | 최대 건축 가능 제한 | 최소 건축 가능 제한 |
|------------------------|--------------|-------------|-------------|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모든지역 | 0 | - |
| 인접대지사선제한(일반사선제한) | " | 0 | - |
| 인접대지간격높이제한 | " | 0 | - |
| 대지내 인동 간격 높이제한 | " | 0 | - |
| 전면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 " | 0 | - |
| 지구내 높이제한 | 미관, 고도, 경관지구 | 0 | 0 |
| 건축물의 앞면 길이 | 미관지구 | 0 | 0 |
| 건축물의 옆면 길이 | 미관지구 | 0 | 0 |

표11. 지구단위계획 설계제어 요소

| 물리적대상 / 관계자 | 계획 요소 | 설계제어 요소 | |
|-------------|---|-----------|--|
| 건물 주변 공간 | 대지 대지내 공지 대지내 공개 공지 | 대지 | 규모, 형상, 용도, 분할 |
| | 도로쪽 오픈스페이스 | 대지내 공지 | 공지를, 공지면적, 전면공지폭, 축면공지폭, 배후공지폭 |
| 도시 경관 | 가로변의 형성 접지층의 높이 건물의 외벽 외관의 형태 광고판 | 건물 외관 | 1층 바닥높이, 개구부높이 벽면(외벽)처리 투시벽, 재료, 색채 지붕/옥상, 담장형태 광고판, 안내판설치 |
| | 조경 | 단지내조경 | 우상조경, 대지경계선 조경 |
| 건축주 공공 | 스카이라인 | 건축물 | 건축물 높이제한(경관), 고지대 높이제한 |
| | 가로, 대중교통시설물 | - | - |
| 건축물 | 가로수 | - | - |
| | 건물의 규모, 높이 | 규모 | 용적률, 건폐율, 높이/층수 |
| 건축주 | 건물의 용도 | 용도 | 용도제한, 권장 |
| | 건물의 위치 | 위치 |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한계선, 벽면지정선 |
| 건축주 | 건물의 형태, 랜드마크 | 형태 | 건물전면방향, 건물의 배치 길이/폭 |

표12. 서울시 건축심의 기준

| 구분 | 내용 |
|---------|---|
| 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의 배치가 주위환경을 저해하거나 주요경관을 차단하는지 여부 (예: 고공주위 고층건물, 낮은주변 고층건물, 주거지내의 고층아파트) 건물의 배치가 교통의 장애를 발생하는지 여부 (교통량이 많은 터미널 건물 등) 인접하는 기존건축물의 긴축선 및 건축물 형태와의 조화여부 인접하는 기존건축물 및 전면도로의 축면과의 조화여부 도시설계구역은 도시설계기준에 따라 건축물 배치 여부 다중집중이용건축물의 경우 전면광장 확보도록 유도 |
| 외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접대지에 기존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좌우측 기존건물의 외형과 잘 어울리는 외관 및 색채 (조희 또는 대비)로 할 것 저층부의 재료와 색상을 상충부와 조화되게 할 것 외장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시율 12% 이하의 유리를 사용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각장애와 인근주택기의 환경저해요인 최소화 건물의 축면도 전면과 조화되도록 창문나누기, 기둥계획, 재료사용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 |
| 외관 및 색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상 파라يت은 필요 이상으로 높지 않도록 할 것 외장재는 (옥탑 포함) 불변재료로 하되 가능한 중밀재료 및 조화되는 색상을 사용 증축을 전제로 하여 철근을 노출하거나 기타 부식하기 쉬운 재료 등을 사용하여 외부 마감에 손상이 거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공동주택의 경우 밸코니, 난간의 구조는 부식방지 재료를 사용할 것 |

* 외장색재계획 : 건축계획심의시 일괄 심의를 원칙

표13. 건축심의 대상

| | |
|--|--|
| 종인건축 위원회 (건설교통부) | ① 기술적 기준(법 제59조의 3 제1항)에 관한 세부기준의 제정, 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 ② 도시설계 승인에 관한 사항 |
| 심의 대상 지방건축 위원회 (특별시, 광역시, 시.도.군 ,자치구) | ① 건축조례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② 건축허가 시전승인 및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 (특별시, 광역시) ③ 도시설계안의 심의 ④ 미관지구, 특정가구정비지구, 아파트지구, 도시설계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 미관지구의 예외 1) 조례로 정하는 소규모 건물 2)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 3) 공작물로서 광고를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⑤ 디종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 디종이용 건축물중 16층이상이거나 30,000㎡ 이상인 경우 조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도의 지방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음.) ⑥ 기타 법령에서 지방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

5.2 선진 도시의 건축디자인 관리 사례

우리와 비슷한 도시계획시스템인 조닝(zoning)제도 속에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건축디자인 관리사례를 살펴보았다.

5.2.1 샌프란시스코의 건축디자인 관리방법¹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관한 용도지구, 높이 및 용적 등에 관한 조닝제도 이외에 건축행위시 건축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 심사제도(design review)를 실시하고 있다.

이 디자인 심사제도는 크고 작은 건축행위에 상관없이 모든 건축행위에 대하여 인근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디자인 심사의 과정을 통한 건축허가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건축허가 과정

건축허가과정은 크게 주거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균린지구와 상업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운타운으로 나누어서 심사가 이루어진다.

1) 균린지구에서의 디자인 심사제도

균린지구에서 이루어지는 디자인 심사는 도시계획국의 담당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건축주가 담당관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제출하면, 건축의 내부수리 이외의 모든 신청서는 도시계획국 담당자에게 심사가 의뢰되어, 건축주와 균린주민을 포함한 심사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서로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을 의뢰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제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2) 상업지구에서의 디자인 심사제도

상업지역에서의 건축허가는 도시계획국의 조닝 담당관

이 운용을 담당한다. 디자인 심사과정은 신청서제출 및 고시(告示), 조닝 담당관의 심사,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청회에 의한 심사 등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최소한 24주의 심사기간이 소요하게 된다.

심사의 내용은 건물의 배치, 방향, 규모, 패사드, 조망통로, 주차장, 보행자공간, 인접지 공공공간의 영향 등 다양하게 심사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건축물 및 일정 규모이상의 주거단지나 일정 지역에 한정된 건축심의(경관심의)가 행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개보수 등 사소한 건축행위더라도 디자인 심사와 주민의 동의를 얻어 디자인 폐단사례를 미연에 막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이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5.3 개선방안

그동안 건축행위는 건축주의 사유재산권 행사라는 불가침의 기본 권리로 환경권 보다 우선된 권리로 인식하여 많은 사람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더라도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원칙으로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다.

비록 건축물이 개인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건축되었을지라도 건축물이 도시내 장기간에 걸쳐 공간을 점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되므로 더 이상 건축물을 개인의 것으로만 생각할 수 없으며, 건축디자인의 경우 그 영향범위가 비교적 크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에 이롭게 디자인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소극적 심의 제도의 개선

도시미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시행했던 건축심의, 미관심의, 지구단위계획 등 제한적인 범위에 걸친 미관심사가 아닌 그 적용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도시미관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물리적 규제방법에서 심미적 규제방법의 적용

기존의 단순한 물리적인 양적 디자인 제한에서 디자인 행위별 내용에 따라 건축디자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건축디자인의 다양성을 모두 법제화하여 규제한다는 것은 무리이므로 공공의 전문가로부터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 디자인 관리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3) 인근주민의 건축디자인에 참여

우리의 기존 건축허가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의사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 건축허가 과정은 건축주와 허가관청간의 비공개적인 건축허가절차로 인근주민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권리주장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건축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건축허가 단계에서 인근 주민의 참여가 요구된다.

14) “이정형,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디자인심사제도의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01. 8에서 인용

6. 결론

도시의 폐적하고 아름다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도시의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으로 점차 이질적이며, 자극적 그리고 과잉 건축디자인이 늘어나고 있어서 도시의 안락함과 폐적성 등의 향상에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과 인구유입으로 건축물의 양적 공급이 우선되어 빈곤한 경제사정과 관련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도시의 조화롭고 폐적한 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폐적한 환경의 기본 조건인 건축물의 공공성은 도시의 안락함과 아름다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 사회·문화적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서로에게 이익을 되돌려주는 가치의 생산적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도시가 성장하고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건축의 공공적 요소 중 건축의 미적 요소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인에게 보여지며, 시각적 영향범위가 건축의 다른 요소에 비하여 매우 넓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나 또는 건축물 이용자보다도 인근 생활자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건축디자인의 공공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기적이고 자극적인 건축행위로 말미암아 도시민에게 스트레스 및 시각적 공해를 유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예각과 사선을 이용한 자극적 형태의 건축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사례이다. 이를 잘못된 건축디자인 사례에서 지적된 예각디자인을 개선한 사례의 경우, 건축물에서 느껴지는 미적 호감과 폐적함이 크게 개선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공공의 복리증진과 미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의 건축관련 법 제도를 살펴보면, 건축물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 법 규정이 외각선 만을 다루고 있어서 그 안에 담기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를 다루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또한 대형건축물이나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서 다양하게 변화되어 표현되는 건축디자인을 제한하거나 유도하기에는 매우 미약하여 일상 생활 주변의 건축물의 미관은 방치되고 있었다.

선진도시의 사례인 샌프란시스코의 건축디자인 심사제도를 살펴보았을 때 인근주민이 디자인에 대한 심사권을 갖고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디자인 심사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건축심의 제도에 있어서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

현재 우리의 건축환경이 과도기적 양적 팽창의 시기가 지난 시점에서 그리고 보다 고도화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건축디자인 관리 정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폐적하고 안락한 도시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모든 지역과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나 건축가의 독단으로 건축행위가 되지 않도록 신축뿐만 아니라 경미한 외

건축의 형태에 있어서 예각디자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관의 변화를 줄 때에도 공공의 전문가로부터 평가를 받은 후 실행되어야 할 것이며, 폐적하고 안락한 환경 속에 사는 것이 국민의 기본 권리인 만큼 건축디자인 행위에 있어서 인근주민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종보, 폐적한 도시건설을 위한 건축행정법, 학우출판사, 1999
2. 임승빈, 환경심리·행태론, 보성문화사, 1986
3. 이겸환 외 4인, 상세계획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6. 10
4. 이재준·황기원, 주민 의식에 나타난 주거환경 폐적성에 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997. 4
5. 박인갑, 박춘근, 도심부 건축군 형성에 있어 건축법의 형태 및 밀도규정에 관한 비교연구-한국, 일본, 독일, 미국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지, 1993
6. 정석외 2인, 건축의 공동성 증진을 위한 건축 기준 및 유도 방안,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1997
7. 권오현, 건설산업동향 국제 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주거 수준과 향후 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1
8. 김영태, 유희준, 텔큐빅 건축공간에 대한 심리학적 반응의 실험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88. 10
9. 김영태, 유희준, 공간지각과 건축형태의 역동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88. 6
10. 진정수, 박종택,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8
11. 이정형,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디자인심사제도의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01. 8
12. 김은중, 서울시 일반건축물 심의제도 및 그 문제점에 관한 연역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998. 8
13. 김창덕, 김예상, 서상숙, 이용일, 건설기능인력의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7. 6
14. 김세용, 양동양, 도시 공공공간의 폐적성 형성인자의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7. 6
15. 엄봉훈, 폐적환경 평가를 통한 지각환경의 질(PEQI)평가 (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과학회, 1997
16. 인천발전연구원, 폐적한 도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청회, 인천발전연구원, 1999
17. 박광석, 시자극 유발성 뇌파의 분석 및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18. 이정근, 도시미와 경관, 대한건축학회지, 1992. 1
19. 이상준, 도시 미관과 건축, 대한건축학회지, 1992. 1
20. 이경훈, 건축물 외관의 아이덴티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21. 송대호, 건축물 형태의 지각·인지 분석을 통한 경관디자인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22. 정준형, 이중우, 도시 대중주택 외관형태의 의장적 특성 및 의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3. 9
23. 윤혁경, 문홍길, 안재락, 지구단위계획과 건축에 대한 토론회, 대한건축학회, 2001. 4. 14
24. 정택, 미관지구내 건축규제 기준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학위논문, 1999
25. 이민섭, 도학연구, 기문당, 1999